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꿈을 펼치다

+ 인공지능 농작물 병충해 진단 시스템 개발자

해충으로 인한 작물 손실과 농작물 품질 저하 등을 최소화하려면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고양특례시 청년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방제비용 감소와 선제적 대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는 ‘팜 페어리(Farm Fairy)’ 개발팀의 손동우 씨를 만났다.



농작물의 병충해, 스마트폰 앱으로 진단하다

주말농장 등을 이용해 농작물을 키우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정성껏 키운 농작물이 병충해로 무용지물이 되는 일을 종종 경험하곤 한다. 손동우 씨가 개발에 참여한 인공지능 농작물 병충해 진단 시스템 ‘팜 페어리(Farm Fairy)’는 농작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나 주말농장 입문자들을 대상으로 병충해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다. 이 시스템은 노지 농작물에서 생기는 각종 질병과 관련 사진을 분석해 스스로 학습함으로써 병충해 진단 능력을 높이도록 설계되었다. 사용자가 농작물의 병충해 사진을 업로드하면 병명 진단과 더불어 전염경로, 발생환경, 병의 증상, 방제 방법 등을 알 수 있다.

기존에도 인공지능 농작물 병충해 진단 시스템은 있었다. 하지만 고추, 감귤 등 소수의 특정 작물에 국한되었다. 하지만 손동우 씨 팀이 개발한 시스템은 콩, 파, 오이, 호박 등 일반인들이 주로 키우는 10여 가지 작물을 대상으로 50여 가지 병충해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

이 시스템의 장점은 병과 해충으로 분류해 정확도가 높은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NCPMS)에서 제공 받은 정보를 적용했기 때문에 높은 신뢰도를 자랑합니다.

”

새로운 경험을 통해 더 큰 목표가 생겼다

대학교에서 소재공학을 전공한 손 씨는 졸업 후 IT 개발자의 꿈을 키워왔다. 막연했던 그의 꿈은 ‘고양 희망 청년인턴’ 과정과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면서 이뤄졌다.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은 그는 ‘양질의 서비스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자신만의 해답을 찾아 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빅데이터를 이용해 실제로 구동 가능한 시스템을 완성했을 때 느낀 희열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컸다. 손 씨는 올 연말 안드로이드 기반의 앱을 출시한 후 앱스토어에서도 선보일 계획이다. 또, 양질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발자 업무가 제 생각보다 훨씬 흥미롭고 재미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앞으로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이용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앱 개발에 다시금 도전할 생각입니다.”

그는 꿈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지금 이 순간이 진심으로 행복하다고 말한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 멋진 청사진을 그리는 손동우 씨. 꿈을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는 그의 내일을 응원한다.



인공지능 농작물 병충해 진단 시스템